농식품부,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 개최

국내 최대 전통주 행사로 다양한 정보 제공… 전통주 인지도 제고 · 소비 확대 · 전통주 산업화 촉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 제1전시장에서 '2022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이하 우리술 대축제)'를 지난 18~20일까지 개최했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우리술 대축제'는 국내 최대규모의 전통주 행사로 소비자에게 우리술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으로 전통주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소비를 확대하여 전통주의 산업화 촉진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축제에는 '개막식, 우리술 품평회 시상식, 우리술 체험관 및 업체관, 주류산업관, 먹거리관'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우리술 체험관'을 통해 막걸리 빚기와 소주 내리기 등 우리술 만들기 체험과 전통주 소믈리에 체험, 나만의 술잔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또한, '우리술 업체관'에서는 소비자가 자신의 기호에 맞는 술을 시음 및 구매할 수 있으며, '주류산업관'을 통해서는 평소 접할 수 없었던 양조 관련 설비와 기자재를 전시했다.

'2022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시상식'에서는 5개 부문(탁주, 약·청주, 과실주, 증류주, 기타주류) 올해 최고의 술로 선정된 15개 제품(대상 5점(대통령상 1, 농식품부장관상 4), 최우수상 5점(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상), 우수상 5점(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상)에 대한 시상도 함께 마련했다.

여기에 부문별 대상 중 약·청주 부문 대상인 중원당의 '청명주'가 최고 영예인 대통령상에 선정됐으며, 탁주 부문은 양주골이가전통주의 '이화주', 과실주 부문은 수도산와이너리의 '크라테미디엄드라이', 증류주 부문에는 국순당 여주명주의 '려증류소주40', 기타주류 부문에는 한산소곡주명인의 '오크볼소곡주'가 선정되 농식품부장관상 수상을 안았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우리술 대축제를 통해 소비자에게 우리술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전통주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새만금개발청, 중국 기업 투자유치 속도 낸다

한중무역투자박람회 참가, 핵심사업에 중국기업의 적극 투자 요청
한 · 중 양국 간 그린에너지 · 신산업 분야 실질적 협력 강화 피력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규현)는 중국 옌청시에서 열린 '제4회 한중무역투자박람회, 한국-장쑤성 경제무역합작교류회'에 비대면(온라인)으로 참석해 새만금의 투자환경을 소개하고, 중국 기업인들의 투자를 요청했다.

이 행사는 중국 측 한중산업협력단지 중 한 곳인 장쑤성 옌청시에서 매년 개최되는 '한중 경제협력 행사'로서, 개막식 양국 정관계 인사와 SK, 현대차, 헝퉁그룹 등 양국 기업 관계자 32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 새만금개발청은 "탄소중립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도전과 기회를 맞아 한중 양국이 그린에너지와 신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특히 기회의 중심에 '새만금'이 있음을 강조하며,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재생에너지 기반의 '스마트그린 국가산단'과 그린에너지를 활용해 탄소중립을 실현할 '스마트 수변도시' 등 핵심사업을 소개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다.

중국 기업들은 새만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우수한 지원정책과 신산업에 최적화된 투자환경, 항만·공항 등 필수 물류 기반시설이 속도감 있게 조성되는 상황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새만금 한중산단에는 지난해 한중 합작의 'UTG(초박막유리) 생산설비 제조공장'과 중국이 단독 투자한 '산화텅스텐 생산공장'에 이어, 올해 9월에는 한중합작 '이차전지 리튬화합물 생산공장'을 유치하는 등 중국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전주파티마신협, 자산 5000억원 달성

전주파티마신협은 자산 5,000억원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양춘제 전주파티마신협 이사장, 강연수 신협중앙회 전북지부 본부장, 전주파티마신협 관계자'은 지난 17일 전주파티마신협 본점에서 '자산 5,000억원 달성 기념패 전달 기념식'을 진행 했다.

이날 강연수 본부장은 "자산 5,000억원을 달성하기까지 노력해준 임직원들께 감사하다"며 "금융협동조합인 신협의 원형을 잘 유지하면서 이룬 성과인 만큼 앞으로도 꾸준한 성장과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의 균형을 유지하는 전주파티마신협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양춘제 이사장은 "자산 5,000억 달성은 조합원들의 변함없는 노력의 결과이며, 임직원의 값진 성과"라며 "조합원과 지역이 함께하는 금융을 만들기 위해 상호금융의 진정한 리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창립 43주년을 맞은 전주파티마신협은, 1979년에 창립총회를 갖고 개점했으며, 약 22,000여 명의 조합원이 이용하고 있는 대형 조합으로 전주서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몽골텐트 기증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들을 통해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농촌진흥청, 인삼 곰팡이병 발생 억제 미생물 발견

잎에서 분리한 내생균, 병원균 균사 생장 30% 이상 억제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는 인삼 잎과 줄기 등 지상부에 피해를 주는 주요 병을 안전하게 방제할 수 있는 미생물을 새로 발굴했다.

인삼에 점무늬병, 잿빛곰팡이병, 탄저병 등 지상부 병이 발생하면 잎과 줄기가 상하고 뿌리 생장이 더뎌지며 심한 경우 뿌리가 썩게 된다.

지상부 병 방제에는 주로 약제 등 화학방제를 활용하는데, 한 곳에서 최소 4년 이상 재배하는 인삼은 약제 저항성 병원균 출현 등으로 같은 약제를 연속으로 쓰는 것이 쉽지 않아 안전한 방제 기술이 필요하다.

농촌진흥청이 이번에 발굴한 '슈도모나스 푸티다 피지비이89(PgBE89)'는 3년생 인삼 잎에서 분리한 내생균이다. 내생균이란 식물체 안에서 일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내는 미생물로, 식물에 해를 입히지 않으며 작물 생육이나 병 저항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연구진은 자체 재배 중인 인삼에서 재배 시기와 조직에 따라 내생균을 분리하고 총 311균주를 확보했다. 이들 균주와 인삼 점무늬병, 잿빛곰팡이병, 탄저병 병원균을 함께 배양하는 실험을 통해 'PgBE89'를 선발했다.

연구 결과, 'PgBE89'는 점무늬병, 잿빛곰팡이병, 탄저병 병원균의 균사(곰팡이 등을 포함한 균류에서 관찰되는 긴 실 모양의 구조를 말하며, 대부분의 곰팡이에서 영양생장의 주된 형태를 뜻함) 생장을 30% 이상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생 인삼잎을 'PgBE89' 현탁액(1.0×107cfu/ml)에 3분 정도 담근 뒤 점무늬병, 잿빛곰팡이병 등의 병원균을 접종한 결과, 내생균을 처리한 잎은 내생균을 처리하지 않은 잎보다 잎의 병 발생 면적이 70~90%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다.

균주 분리와 병원균 배양 관련 연구 결과는 지난해 국제 학술지 '3 바이오텍(3 Biotech)'에 실렸다.

농촌진흥청은 항진균 활성 물질을 생산해 병원균 균사 생장을 억제하는 'PgBE89' 내생균의 특허출원을 마쳤다. 내생균을 미생물 농자재로 개발할 수 있도록 병 피해가 많은 4~6년근 밭에 직접 처리하는 연구를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과 김동휘 과장은 "내생균은 다른 미생물보다 안정성과 효과 지속성이 높은 만큼 인삼 지상부 병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방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제9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이은미 신임 원장' 취임

진흥원 역사상 첫 내부 · 여성 원장, 바이오산업 차별화 정책 등 경영혁신 6대 추진전략 제시

'제9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에 이은미 신임 원장이 지난 18일 임명 됐다.

취임식에 앞서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바이오진흥원 이사장 김종훈 경제부지사로부터 임명장을 수여 받았다.

제9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전북대학교에서 화학공학/생물공학 박사 과정을 거쳐 2001년 바이오진흥원에 입사해 '기획실 실장, 산업혁신 본부장직'을 역임해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전문위원, 농림부 과학기술위원회 농산식품분과위원장, 과기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비상임이사'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자타가 공인하는 농생명·바이오 전문가로 인정받았다.

이은미 신임 원장은 취임식에서 "기관 혁신을 통해 농생명·바이오 분야 산업생태계를 융복합 미래 신산업으로 확대·발전시키겠다"고 힘찬 포부를 밝혔다.

이 원장의 힘찬 경영혁신 6대 추진전략으로는 '지속가능한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차별화, R&D.B 역량 확대, 기업혁신 생태계 조성, 일자리 생태계 구축, 재정자립도 제고, 지속가능경영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은미 신임 원장은 20여 년이 넘는 바이오진흥원 역사상 '첫 내부원장, 첫 여성원장'으로 내부 임직원들은 물론 전북도와 중앙부처 등 안팎에서 많은 기대와 지지를 받고 있다.

/김영태 기자

조재호 농진청장, 케냐 메루주 지사에게 감사패 · 감사장 받아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아프리카 케냐 메루주(州) 비숍 카위라 므왕가자(Bishop Kawira Mwangaza) 주지사로부터 감사패와 감사장을 받았다.

비숍 카위라 므왕가자 주지사는 감사패를 전달하며 "'코피아(KOPIA)사업'으로 메루주 1,200 농가의 소득이 크게 증대됐다"고 설명했다.

코피아 사업이란, 농촌진흥청이 주관해 개발도상국 현지 맞춤형 농업기술 개발 보급을 통해 협력대상국의 농업 생산성 향상 및 소농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 사업을 말한다.

비숍 카위라 므왕가자 주지사는 "연수 과정과 각종 시설을 지원해 준 농촌진흥청과 담당자들에게 고마움을 표한다"며 "앞으로도 메루주와 대한민국 간 협력과 우호 관계가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감사패는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직무연수차 한국을 방문한 메루주 전임 농업부 장관과 시범 마을 농가 대표, 협력 기관 과제 담당자 등이 대신 전달 받았다. /김영태 기자